

폭염도 즐기는 김도영, 더 뜨거운 여름 꿈꾼다



최근 7경기 11안타 6홈런 9타점 타율 0.407 활약

“땀 흘리는 모습이 가장 멋있어…팀 승리만 생각”

“운동선수라면 여름에 땀 흘리는 모습이 가장 멋있지 않나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로야구 일정마저 멈춰 섰지만 KIA타이거즈 김도영은 오히려 더위를 즐기고 있었다. 유니폼을 입고 흘리는 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프로의식이 지금의 김도영을 만들고 있다.

김도영은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7경기 27타수 11안타 6홈런 9타점 타율 0.407을 기록하며 KIA 타선을 이끌었다. 시즌 성적도 100경기 11안타 33홈런 86타점 83득점 타율 0.300으로 홈런 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2할대에 머물던 타율도 마침내 3할에 올라섰다.

하지만 상승세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마주했다. 지난 1~2일 장원 NC전이 폭염으로 취소된 데 이어 광주 KT전까지 잇달아 연기되면서 KIA는 닷새 넘게 실전을 치르지 못했다. 타자에게는 가장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김도영은 답답했다.

지난 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그는 “이쯤에서 쉬어가라고 하늘에서 내린 계시라

고 생각한다.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홈런 페이스를 보면 리그에서 가장 뜨겁다. 자연스럽게 홈런왕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정작 김도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오스틴이 홈런을 쳤는지도 찾아보지 않는다. 팀이 이기는 것만 생각하면서 치다 보니 오히려 홈런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아시안 게임 진출도 있기 때문에 홈런왕 욕심은 처음부터 크지 않았다. 그것도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신 목표는 분명하다. 자신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는 것이다.

김도영은 “3할 타율은 항상 목표로 삼고 있다. 3할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더 높은 타율을 유지하고 싶다”며 “2024년에 38홈런을 쳤던 경험이 있는 만큼 올해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0홈런 정도는 꼭 쳐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했던 만큼 몸 관리도 철저하다. 올 시즌 도루는 6개

에 그치고 있지만 이는 무리한 주루보다 시즌을 길게 바라본 결과다.

김도영은 “다리는 전혀 이상이 없다. 경기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기 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그만의 작은 루틴도 있다. 최근 중계 화면을 통해 알려진 ‘글러브 냉장 보관’이다. 그는 “3루수는 빠른 타구가 많아 글러브가 헐거우면 공이 밀릴 수 있다”며 “냉장고에 넣어두면 단단해져 새 글러브 같은 느낌이 든다. 안정감이 있어서 2024년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야외 훈련을 고집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도영은 “실내 배팅보다 밖에서 치는 것이 훨씬 좋다. 수비 훈련도 오래 못 했기 때문에 평고도 받으려고 한다”며 “운동하면서 땀 흘리는 것은 당연하다. 중계 화면에 땀 흘리는 내 모습이 잡힌 것을 봤는데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야구하는 내 모습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웃었다.

폭염은 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다. 그러나 김도영에게 여름은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다. 팀 승리만 바라보며 묵묵히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의 시선은 이미 홈런왕보다 더 높은 곳,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즌을 향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BO, 폭염에 리그 일시 중단…11일부터 재개

내달 6일까지 오후 7시 경기…쿨링브레이크 고정 운영

대응 체계 강화…폭염 저감 시설 확대로 안전 최우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KBO리그가 결국 일시 중단된다. KBO는 경기 재개 시점을 미루고 경기 시간을 조정하는 등 선수단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KBO는 6일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폭염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이번 주말까지 예정된 경기를 모두 취소하고 오는 11일부터 리그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근 이어진 폭염 속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와 온열질환 우려는 물론 관람객 안전까지 고려한 결정이다.

경기 시간도 변경된다. 9월 6일까지 전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7시로 조정한다. 고척스카이돔은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2시에 경기를 치른다. 다만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기존 시

간대로 복귀하는 방안도 유동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퓨처스리그 역시 10일까지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 이후 31일까지 편성된 야간 경기는 오후 7시에 시작하며, 폭염 상황에 따라 정규야닝 단축도 가능하다. 양 구단이 합의하면 오전 10시 경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에 따른 경기 취소 기준도 보다 구체화됐다. 경기장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오후 1시 이전 발효되면 경기를 취소하고, 오후 1시 이후 발효될 경우 예도 즉시 취소한다. 경기 시작 전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거나 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경기운영위원 판단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경기 중 폭염이 심해질 경우에도 선수단과 관람객 상태, 현장 체감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중단 또는 속행 여

부를 결정한다. 필요하면 경기 시작도 최대 오후 7시 30분까지 늦출 수 있다.

선수들의 휴식 시간도 늘어난다. 3회와 7회 종료 후 이닝 교대 시간을 4분으로 확대해 쿨링 브레이크를 고정 운영하고, 5회 종료 후 클리닝타임도 최대 6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전에서는 9회 종료 후에도 4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관람객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경기장 입장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문자와 전광판, 장내방송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과 의료지원 체계를 안내한다. 아울러 그늘막과 쿨링포그, 음수시설, 냉풍기 등 폭염 저감시설 확충과 의료·응급 인력 추가 배치도 추진한다.

KBO는 구단 안전담당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경기 당일 폭염 대응 시설과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규시즌 일정 편성에서도 폭염 집중 기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검증된 미드필더 김종석 영입

K3리그 득점왕 출신…경험 풍부한 멀티 자원 기대

프로축구 광주FC가 후반기 반동을 위한 중원 보강에 나섰다.

광주는 6일 K3리그 득점왕과 최우수선수(MVP)를 동시에 차지했던 미드필더 김종석(31)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포항제철고와 상지대를 졸업한 김종석은 2016년 포항스틸러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안산그리너스와 김포FC, 충남아산FC, 용인FC 등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다.

가장 빛났던 시즌은 2021년이다. 당시 K3리그 천안시축구단 소속으로 24경기에 출전해 15골을 터뜨리며 득점왕과 최우수선수(MVP), 베스트11을 모두 석권



터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광주는 김종석의 합류로 중원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전술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열한 후반기 일정 속에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만큼 공격 전개의 선택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김종석은 “광주FC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고 다시 K리그1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며 “남은 시즌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팀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 유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박차

전남도체육회가 유소년 선수들의 스포츠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위해 마련한 스포츠체험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장흥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2026 유소년 스포츠 리더십캠프’와 여수 소호요트경기장에서 열린 ‘2026 유소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캠프에는 유소년 스포츠클럽 선수와 학생 등 7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스포츠 역량 진단과 체력 측정, 리더십 교육,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등 교육과 실습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기초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1차 리더십캠프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스포츠 인재 역량 진단과 스포츠과학센터 체력 측정, 자기이해 및 자기개발 교육, 훈련·영양관리 교육, 성장 방향 설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잠재력 개발을 지원했다.

또 분야별 전문 강사진의 특강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유연성 전남도체육회 이사의 토크콘서트도 마련돼 스



전남도체육회가 유소년 선수들의 스포츠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위해 마련한 스포츠체험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리더십 교육·해양레저 캠프 2차례 운영

역량 진단·진로 탐색으로 성장 기반 마련

포츠 선수로서의 자세와 진로에 대한 조언을 전했다.

2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캠프는 이달 5일 여수공공스포츠클럽과 협력해 여수소호요트경기장에서 진행됐다. 학생 33명이 참여해 덩기요트와 크루저 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 종목을 직접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뒤 전문 지도자의 지도 아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해양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키웠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캠프를 통해 스포츠 역량 기반 교육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유소년 선수들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스포츠클럽과의 협업을 확대해 미래 체육인재 육성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앞으로도 유소년들이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 순천시 개최

60개 국가 6000여명 선수 참가
관광자원·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국기원이 주최하는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최지 선정은 팔마체육관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풍부한 관광·문화자원, 대규모 국제행사 운영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은 단순한 경기대회를 넘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품새와 격파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고 문화로 교류하는 태권도 축제다.

2027년 7월 말부터 4박 5일간 순천 팔마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15개 종목 170개 부문에 걸쳐 60여 개국 6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 개최는 국제 스포츠도시로서 순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 유입 확대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최근 국기원에서 2027세계태권도한마당 선정에 대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로 기대된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순천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순천의 우수한 자연과 문화,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

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 세계태권도한마당은 국기원과 순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세계태권도한마당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